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지난 해 '국악의 향연'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우리 곁의 민속 음악

더 가까이 즐긴다

명다리걸기, 농요, 길쌈소리, 상여소리, 씻김굿...
우리 곁에는 예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토속민요가 자리했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결부돼 불리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매개체였다. 또한 일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공동체를 묶는 노래이기도 했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라져 가는 토속민요를 발굴하고 기록해 전승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국악원의 상장과도 같은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가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양당 무대에 오른다. 국악연주단과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 팀이 참여해 총 34회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올해 상설공연은 주제공연과 명인·명장전, 지역 우수단체 초청 및 신진예술가 무대에 더해,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토속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5월 16일에는 '농요'를 주제로 한 상설공연이 펼쳐진다. 진도 남도들노래와 경남 고성농요, 황해도 향두개놀이를 지역별 농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지난해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선보인 '수교 40주년 기념' 공연 모습.<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남도국악원, 올 주요사업 발표

농요·상여소리 등 토속문화 재조명

어린이 국악극·창극 등 새롭게 제작

국악 전공자 위한 '대학국악제' 첫 선

6월 13일에는 '상여소리' 공연이 이어진다. 진도 만가와 고양 상여소리, 경북 점촌상여소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달고 다른 상여소리의 모습과 실제 상여문화의 차이를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굿음악축제' 역시 사라져 가는 토속음악에 시선을 둔다. 2010년 시작해 매년 어여져 온 이 축제는 그동안 진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 해외의 무속음악을 무대에 올리며 굿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왔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이가 전승이 끊기거나 기억 속에만 남은 희귀한 굿을 복원해 공연으로 선보인다. 소멸된 굿에 대한 자료 조사와 복원 과정, 그의 미를 공유하는 학술회의도 함께 마련된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문화 중심의 무대를 선보였다면, 이번 축제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점차 사라지는 바람에 지역민의 기억 속에만 남은 토속음악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양당 내부 공사로 지난해 실현적으로 선보였던 '해설이 있는 풍류 음악회'는 관객들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진다. 국악과 인문학을 접목한 렉처형 토크 콘서트로 민요와 굿, 전통춤, 국악기 등을 주제로 강연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

연은 오는 9월부터 격주 수요일, 총 4회.

창작 레퍼토리 확장도 눈길을 끈다. 국악은 올해 어린이를 위한 국악극과 창극을 새롭게 제작해 선보인다. 다소 무겁게 인식돼 온 전통 소재를 보다 친근한 서사로 풀어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어린이 국악극 '무당호랑이, 풍이의 대모험'은 백두산에 사는 무당호랑이가 진도로 내려와 흥과 소리를 배워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5월 어린이날 무대에 오른다. 이어 추석 시즌에는 진도 옛 오일장의 풍경과 기억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창극 '최고의 장사꾼을 찾아라'가 관객과 만난다.

청년 예술인을 향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국악 실기 전공 대학생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는 '대학 국악제'가 6월께 첫선을 보인다. 기존 '대학생 연합 세미나'와 연계해 이론·실기 전공자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는 취지다. 올해는 호남권과 영남권 대학 국악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구·기록 사업 역시 지속된다. 국악원은 2025년부터 진도 예인과 민속학자를 대상으로 구술채록 총서를 발간해 았다. 올해는 진도 민속예술 발굴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정호 전 진도문화원장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기록으로 남겨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박 국악원장은 "2026년에는 말의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통예술 활성화는 물론 국악원이 지역과 국민을 잇는 열린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각언어로 세계와 접속 'Hello, World'

양시영 초대전, 4일~28일 우제길 미술관

양시영의 회화에서 꽂은 배경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 인물 또한 중심이 되지 않는다. 표정도 마찬가지다. 특정 감정을 언어로 지시하지 않는데 이러한 방식은 언어보다는 이미지 감각으로 인식하는 데서 연유한다.

양시영 작가 초대전이 우제길 미술관에서 열린다.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출품작은 모두 21점.

'Hello, World'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 양 작가는 세계와 접속하는 도구로서의 회화의 구성을 보여준다. 양 작가는 언어보다 시각적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식해왔다. 밤달장애라는 자폐 스펙트럼을 지녔던 탓에 어린 시절부터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법. 양 작가에게는 일반의 작가들과는 남다른 시각적 감각이 있다.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다양한 감각이 회화

적 감각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전시 주제 'Hello, World'는 코딩에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때 제일 먼저 출력되는 문구다. 즉 세계와의 첫 접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양 작가는 자신만의 시각언어로 세계(타자)를 향해 말 걸기를 한다.

'Lovers'는 나란히 선 연인들의 모습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몸집에 비해 큰 얼굴과 커다란 이목구비는 편안하면서도 따스한 인상이다. 남자와 여자의 얼굴에는 오똑 솟은 코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새가 다정한 눈길을 건넨다. 사랑하는 두 연인의 마음을 새에 은유해 표현했는데 전체적인 몸짓이나 동작도 천진난만하다.

'케데한 호랑이 더피'는 K-Pop Demon Hunters에 나오는 통통한 호랑이를 표현한 작품이다. 전통적인 호랑이 작품과는 다르게 귀여우면서도 동글



'케데한 호랑이 더피'

동글한 체형은 보는 이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단체 예락이 펼쳤던 창작공연.

<예락 제공>

분단의 시간을 잊는 편지 '그림자 우체국'

예락, 14일 광산문화예회관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 어른과 아이의 시간을 이어준다.

작품은 휴전선 너머로 전해지지 못한 마음들이 머무는 공간을 상상의 우체국으로 형상화해, 분단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개인의 기억과 감정으로 끌어온다.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닌 일상의 언어로 통일을 이야기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광주 예술단체 예락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광산문화예회관에서 통일창작 뮤지컬 '그림자 우체국'을 선보인다. '2025 통일미래준비사업' 선정작인 이번 작품은 아날로그적 오브제와 판타지적 상상력을 결합해 세대 간 단절과 회복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야기는 방학 속제로 국립우편박물관을 찾은 초등학교 5학년 은하가 전시실 한켠의 '배달 불가 편지 보관소' 문을 열며 시작된다. 은하는 시간이 멈춘 신비의 공간 '그림자 우체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다스러운 관장 제비씨와 당·동·댕을 만나 뜻밖의 모험을 겪는다. 아이의 시선에서 펼쳐지는 여성은

전석 무료, 네이버예약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잊지 말고 발급받으세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의 대표적 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문화누리카드다.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사용이 2일부터 가능해진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옥)은 2일부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사용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카드 발급은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광주시 9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발급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광주 1,445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전국 3만5천여 개). 도서·음악·영상·공연·전시·공예·사진관·축제·관광지·체육시설·체육용품 등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인당 15만 원이다. 청소년기(2008~2013년생)와 준고령기(1962~1966년생) 대상자에게는 1



지난 2025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장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문화재단 예술누리팀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클래식 공연 '2026 그랜드 오페스트라 위크'에서 결제 시 2매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예매 및 현장 결제가 가능하다"며 "예산 소진 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ISO 21388
보청기 적합 관리 인증센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62) 227-997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2) 765-9940

061) 752-9940